

美, 올림픽 20년 징크스 깨고 금메달

여자아이스하키 캐나다와 결승 승부차기 접전 끝 3-2 승 캐나다 올림픽 5연패 좌절

미국 여자 아이스하키가 캐나다의 올림픽 5연패 도전을 저지하고 20년 묵은 한을 풀었다.

미국은 22일 강원도 강릉의 강릉하키센터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결승전에서 캐나다와 승부차기(슛아웃)까지 가는 접전 끝에 3-2(0-1 2-0 1-0 0-0 <승부샷> 1-0)로 승리했다.

미국은 여자 아이스하키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1998년 나가노 대회에서 우승한 이후 20년 만에 정상에 올랐다.

반면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대회부터 우승을 놓치지 않았던 캐나다는 5회 연속 우승 꿈이 무산됐다.

캐나다는 올림픽 연속 행진 역시 24경기에서 중단됐다.

캐나다와 함께 여자 아이스하키 '절대강국'인 미국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세계선수권 8차례 중 7차례나 우승을 차지한 세계선수권의 절대 강자다.

지난해 세계선수권 결승에서 캐나다를 3-2로 제압, 4연패를 달성했다.

세계 랭킹에서도 미국이 1위, 캐나다가 2위로 미국이 앞서지만 유독 올림픽에서는 캐나다의 벽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미국은 드디어 올림픽 징크스를 깼다. 북미에서 이번 대회 최고의 빅매치로 꼽은 이날 결승전에서 선제골을 뽑은 쪽은 미국이었다.

미국은 1피리어드에서 3차례 파워 플레이(상대 선수 퇴장으로 인한 수적 우위) 기회를 잡았고, 결국 마지막 파워 플레이에서 골이 나왔다.

1피리어드 19분 34초에 시드니 모린의 샷을 문전 앞에 있던 힐러리 나이트가 살짝 방향만 틀어 골망을 흔들었다.

석연치 않은 페널티 판정이 잇따르고 실점으로 이어지자 캐나다 응원석은 들끓었다. 캐나다는 2피리어드에서 반격에 나서 단숨에 전세를 뒤집었다.

2피리어드 2분에 헤일리 어윈의 골로 균형을 맞춘 캐나다는 6분 55초에 마리-필립 폴린의 골이 터졌다. 골문 뒤를 파고든 메간 아코스타가 앞으로 뻗어준 패스를 폴린이 원타이머를 통해 득점으로 연결했다.

2006년 토리노올림픽부터 3회 연속 우승을 이룬 캐나다의 정신티치주 아코스타와 주장 폴린이 합작한 역전골이었다.

패색이 짙던 미국은 3피리어드 13분 39초에 모니크 라모르-모란도가 역습 기회를 침착하게 득점으로 연결해 경기를 원점으로 돌렸다.

15분 휴식 후 20분의 연장 승부에서도 양 팀은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결국, 캐나다의 선공으로 승부차기 시작했다. 양 팀이 번갈아서 5명의 슈터가 나왔지만 2-2로 동점이었다.

결국, 6번째 슈터에서 승부가 갈렸다. 다시 순서를 바꿔 미국이 선공에 나섰다. 극적인 동점골의 주인공인 라모르-모란도가 현란한 퓌 드리블로 골리를 제친 뒤 골망을 흔들었다.

캐나다는 아코스타에게 마지막 기회를 걸었으나 아코스타는 미국 골리 매디 루니를 뚫지 못했다.

우승이 확정되자 미국 선수들은 모두 빙판으로 뛰쳐나와 뜨겁게 부둥켜안으며 감격에 젖었다. /연합뉴스



22일 오후 강원도 강릉하키센터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결승전에서 승부차기 끝에 우승한 미국이 환호하면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올림픽 5연패에 도전하는 캐나다(세계랭킹 2위)와 세계랭킹 1위 미국이 결승전에서 또 맞붙었다. /연합뉴스

장거리 탈락 김민석 지구력 훈련...팀추월 銀 합작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 김민석(19·성남시청·사진)은 원래 5,000m를 주 종목으로 뛰는 장거리 전문 선수였다.

그러나 3,000m 이후 체력이 떨어지는 약점을 노출하며 주 종목을 중거리 종목인 1,500m로 바꿨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국내 선발전을 앞두고 그는 무려 7kg의 체중을 감량하며 다시 한 번 장거리 종목 도전에 나섰다.

그러나 자신보다 두 살 어린 정재원(동북고)에게 밀리며 장거리 종목 출전권을 획득하지 못했다.

실망감에 지구력 훈련을 등한시할 뻔했지만, 김민석은 장거리 훈련을 포기하지 않았다.

8바퀴(3,200m)를 뛰는 팀 추월 경기에서 자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기 때문이다.

이승훈(대한항공), 김민석, 정재원으로 꾸려진 남자 팀 추월 대표팀은 지난해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 1차 대회에서 금메달을 차지하는 등 국제대회에서 괄목할 만한 성적을 내며 평창올림픽 메



달 후보 종목으로 떠올랐다. 김민석은 팀의 '돌째 형'으로서 책임감을 발휘했다.

월드컵 기간 내내 8바퀴 중 2바퀴 반을 팀 앞에서 달리며 이승훈(3바퀴 반)에 이어 두 번째로 긴 거리를 책임졌다.

경험이 부족한 '막내' 정재원을 앞뒤에서 끌며 제 역할을 톡톡히 했다.

평창올림픽에서도 그랬다. 남자 1,500m에서 깜짝 동메달을 차지한 김민석은 21일 강릉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에서 열린 남자 팀 추월 준결승과 결승에서도 폭발적인 경기력을 선보였다. 뉴질랜드와 준결승에서 첫 바퀴를 가장

앞에서 끌어가며 속력을 높였고, 5바퀴째부터 한 바퀴 반을 맨 앞에서 질주했다.

노르웨이와 결승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비록 금메달을 획득하지 못했지만 두 바퀴 반을 책임지며 은메달 획득을 이끌었다.

자신의 별명인 '빙속괴물'이라는 칭호가 아깝지 않았다.

평창올림픽을 잘 즐겼던 김민석은 아직 만 스무 살도 안 된 10대 선수다.

그는 단숨에 한국 남자 스피드스케이팅의 희망으로 떠올랐다.

김민석은 이날 경기 후 "그동안 틈틈이 지구력 훈련을 하면서 팀 추월에 대비했다"라며 "다만 오늘 준결승을 소화한 뒤 2시간 만에 결승전을 치렀는데, 회복이 덜됐다. 어렵다"라고 말했다.

"별명인 빙속괴물에 얼마나 더 다가간 것 같나"라는 질문엔 "세 명이 함께 은메달을 딴 것이니, 반 발자국 더 다가간 것 같다"라며 웃었다. 그는 1,500m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뒤 별명에 한 발자국 다가간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팀추월 銀 정재원 "이번엔 형 차례"

빙속 세계주니어기록 보유 정재용 1천m 출격

이번엔 형 차례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남자 팀 추월 은메달리스트 정재원의 형, 정재용(이상 동북고)은 23일 오후 7시 강릉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에서 열리는 평창올림픽 남자 1,000m에 출격한다.

단거리 전문 선수 정재용은 지난해 중순까지만 해도 무명에 가까웠다.

국내에선 두각을 나타냈지만, 국제대회에선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국제대회 경험이라곤 지난해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기간에 열린 국제빙상경기연맹(ISU) 5차 월드컵에 후보 선수 자격으로 출전한 것이 전부였다.

정재용은 장거리 샷별 정재원의 형으로 더 많이 불렸다.

그는 자신을 따라 스피드스케이팅을 배운 두 살 터울의 동생 정재원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다.

지난해 10월 평창올림픽 국내 선발전에서 정재원에 이어 정재용이 태극마크를 달자 모두 이번이 일어났다고 입을 모으

고 했다. 당시 정재원은 "부모님이 형까지 될 것이라는 기대는 30% 정도만 하셨던 것 같다. 형도 되니까 훨씬 더 기뻐하셨다"고 말했다.

정재용은 조용하지만 빠르게 성장했다. 지난해 12월 캐나다 캘거리에서 열린 ISU 월드컵 3차 대회 남자 1,000m에서 1분 8초 41의 기록을 세웠다.

2003년 네덜란드 베오른 니엔후이스가 수립한 1,000m 세계주니어 기록을 14년 만에 경신한 것이다.

평창올림픽 남자 1,000m는 월드컵 랭킹 1위 노르웨이의 하바르 로렌센, 중거리 최강 네덜란드의 키엘 누이스, 네덜란드의 무서운 신에 카이 페르베이 등 세계적인 선수들이 경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재용이 세계적인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에 부족한 면이 없진 않다. 그러나 김민석(성남시청), 차민규(동두천시청)가 그랬듯 깜짝 메달이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다. /연합뉴스

겨울이야기

2017-2018 신양파크호텔

객실패키지 | 2017.12.1 ~ 2018. 2. 28

- 스탠다드룸 ₩ 80,000
- 디럭스룸 ₩ 90,000
- 조식별도 1인 15,000 / 세금포함 -

연회장 할인축제 | 2018.1.1 ~ 3. 31

웨딩, 각종 가족모임 및 기업체 세미나 등 출장파티를 포함한 당 호텔 연회 행사시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 혜택 : 식료 10%, 음주류 30% 할인

신양파크호텔 예약 및 문의 객실 ☎ 062) 228-8000 연회 ☎ 062) 228-4711~2